

타요바리스타즈 vs 태평법률사무소, 정진산업스카이 vs 에프나인 결승 격돌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야구대회
무등·광일리그 정상 도전 4팀 가려
무등야구장서 11일 결승전

광주·전남 야구인들의 '가을 잔치' 무등기 정상에 도전할 4개팀이 모두 가려졌다.

광주일보·아시아문화가 주최하는 제8회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무등기 준결승전이 지난 3일 광주야구장에서 열렸다.

이날 결과에 따라 타요바리스타즈와 태평법률사무소가 무등기 결승에서 맞붙게 됐다. 앞선 광일리그 준결승에서는 정진산업스카이와 에프나인이 각각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다.

쏘울스토리를 상대한 타요바리스타즈는 행운의 추첨으로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승리를 위해 양 팀 선수들은 투혼의 플레이를 선보였다.

타요바리스타즈의 유격수 조양성이 0-0으로 맞선 3회 슬라이딩타치를 선보이며 분위기를 끌고왔다. 그리고 팀은 이어진 3회말 공격에서 3점을 뽑아 내면서 리드를 잡았다.

쏘울스토리도 4회 '부상 투혼'으로 맞섰다. 무릎 부상을 딛고 감독 윤정승이 역전 2타점 적시타를 때리는 등 쏘울스토리가 4회말 대거 5점을 뽑아냈다.

하지만 행운의 여신은 타요바리스타즈의 편이었다. 5회 승부를 5-5 원점으로 돌린 타요바리스타즈

는 5회 시간제한에 따른 추첨으로 승자가 됐다.

위동철이 공수에서 수훈선수가 됐다. 마운드에서 5이닝을 책임진 위동철은 5회말 타석에서는 동점 2타점 적시타를 때려냈다. 감독 박주용도 안타와 사사구 2개로 3타석에서 모두 출루, 2득점을 올렸다.

무등기 두 번째 준결승전에서는 태평법률사무소가 마운드 싸움에서 카멋진님을 압도하며 승리를 품에 안았다.

태평법률사무소 선발 정승환이 2-0으로 앞선 1회말 3실점을 하며 역전을 허용했다. 하지만 1회가 지난 뒤 정승환의 깔끔한 피칭이 이어졌다. 2회부터 7회까지 무실점으로 상대를 봉쇄한 정승환은 9개의 탈삼진까지 뽑아냈다.

정승환은 타석에서도 멀티히트로 2타점 2득점을 올리며 8-3 역전승에 기여했다.

한편 무등기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대망의 결승전은 오는 11일 무등야구장에서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무등기 7주차 경기(무등기 준결승전)

◆1경기(5회 시간제한)

쏘울스토리 00050-5

타요바리스타즈 00302-5 (추첨승)

◆2경기

태평법률사무소 2200220-8

카멋진님 3000000-3

▲승리투수 : 정승환

SK 와이번스 '홈런쇼' 먼저 웃다

한동민·박정권 평평...한국시리즈 1차전 두산 7-3 꺾어

'홈런 군단' SK 와이번스가 홈런쇼로 4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SK가 4일 잠실구장에서 펼쳐진 두산 베어스와의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한국시리즈(KS·7전 4승제)에서 한동민의 선제 투런과 박정권의 역전 결승 투런을 묶어 7-3 승리를 거뒀다.

이 승리로 SK는 '73.5%'라는 한국시리즈 우승 확률을 잡았다.

지난해까지 열린 한국시리즈에서 1차전 승리 팀이 우승한 경우는 1982년 1차전 무승부를 제외하고 전체 34회 중 25차례에 달한다. 확률로 따지면 73.5%에 이른다.

SK를 한국시리즈로 이끈 한동민과 박정권이 다시 한번 그라운드를 돌았다.

넥센 히어로즈와의 플레이오프 최종전에서 연장 10회말 '굿바이 홈런'을 날렸던 한동민이 한국시리

즈 첫 타석에서도 손맛을 봤다. 한동민은 김강민의 볼넷으로 시작된 1회 무사 1루에서 린드블럼의 공을 우측으로 넘기며 2-0을 만들었다.

2-3으로 리드를 내준 6회초에는 박정권의 파워가 폭발했다. 플레이오프 1차전 끝내기 홈런 주인공 박정권은 1사 1루에서 린드블럼의 직구를 잡아당겨 홈런을 만들었다. 승부를 4-3으로 뒤집은 역전 홈런은 박정권의 한국시리즈 통산 4번째 홈런이기도 하다.

홈런으로 분위기를 끌고 온 SK는 이후 리드를 놓치지 않고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한국시리즈 첫판을 가져갔다.

한국시리즈 2차전은 5일 오후 6시 30분 잠실야구장에서 이어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렇게 좋을 수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8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 SK 와이번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6회초 1사 1루 SK 박정권(왼쪽)이 우월 투런 홈런을 날리고 한동민과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트넘 손흥민(가운데 오른쪽)이 3일 영국 울버햄프턴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2019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1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울버햄프턴 선수와 치열하게 공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 리그 첫 도움... 토트넘, 울버햄프턴 3-2 승

동료 선수의 부상으로 급히 교체 투입된 손흥민(토트넘)이 이번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첫 도움을 작성했다.

손흥민은 4일 열린 울버햄프턴과의 2018-2019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전반 27분 에리크 라멜라가 터뜨린 경기 첫 골을 어시스트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첫 도움이자 시즌 2호 도움이다.

앞서 손흥민은 이번 시즌 카라바오컵(리그컵)에

서 2골,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도움 1개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지난 1일 웨스트햄과의 카라바오컵(리그컵) 16강전에서 결승 골을 포함 두 골을 터뜨린 데 이어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쌓았다.

토트넘은 울버햄프턴에 세 골을 앞세워 페널티킥으로만 두 골을 따라 잡혀 3-2로 신승을 거뒀다. 승점 24를 쌓은 토트넘은 4위로 도약했다.

/연합뉴스

4위 실패 광주FC, 플레이오프 희망은 남았다

부산과 2-2 무승부 기록
아산 무궁화 승격 자격 박탈 땀
5위 차지하고 결과 기다려야

광주 FC가 이승모의 극장골로 '끝까지 가는 승부'에 불을 지폈다.

광주는 4일 구덕운동장에서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의 K리그2 35라운드 원정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승점은 더했지만, 광주의 4위 꿈은 무산됐다.

플레이오프 목표를 위해 '광주 승리'와 '대전의 패배 또는 무승부'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지만 광주는 어렵게 무승부를 기록했고, 대전은 부천에 3-0 승리를 거뒀다. 이에 따라 플레이오프 마지막인 4위는 대전의 차지가 됐고, 광주가 가장 높게 오를 수 있는 자리는 5위로 한정됐다.

하지만 광주에 플레이오프 가능성은 남아있다.

K리그2 선두를 확정된 아산 무궁화가 선수 수급 문제로 승격 자격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2위 성남 FC가 자동 승격되고 3위 부산과 4위 대전 그리고 5위까지 세 팀이 승강 플레이오프에 나서게 된다.

아산은 경찰청이 선수 모집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존폐 위기에 몰려있다. 아산의 선수가 총원되지 않으면 내년 시즌에는 클럽 자격 최소 인원인 20명에 6명 부족한 14명만 남는다. 아산이 오는 11일까지 선수 총원 계획을 내어놓지 못할 경우 승격 자격이 박탈될 전망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5일 이사회를 열고 아산 축구단의 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만약 아산의 승격 자격이 박탈되면 광주는 오는



광주 FC의 두아르테가 4일 구덕운동장에서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의 경기에서 전반 17분 선제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광주 FC 제공>

11일 열리는 안산 그리너스와의 시즌 최종전 결과에 따라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다.

5위 자리를 놓고 시즌 마지막까지 6위 안양과 경주의 수를 다투게 된 광주는 극적인 동점소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 중심에는 두아르테가 있었다.

전반 17분 두아르테가 김정환이 머리로 넘겨준 공을 받아 왼발로 슈팅을 날리며 선제골을 만들어 냈다.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다. 전반 34분 안영규의 발에 부산 김진규가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키커로 나선 호몰로는 방향을 숙이고 동점골에 성공했다.

후반 부산의 거센 공세로 광주 골키퍼 윤평국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후반 27분 윤평국이 호몰로의 왼발 슈팅을 쳐내며 위기를 넘겼고, 2분 뒤에도 문전으로 뛰어든 김현성의 슈팅을 저지하면서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후반 33분 이청용의 머리는 막지 못했다. 호몰로가 왼쪽에서 올린 코너킥을 이청용이 헤더로 연결하면서 역전골을 만들었다.

광주가 추가골 사냥에 나섰다. 추가시간 4분도 끝나가면서 광주의 패배가 확정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오른쪽 뒤편에 있던 두아르테가 왼발로 패스를 했고, 이한도의 머리에 이어 이승모의 몸에 맞는 공이 골대를 뚫었다. 이내 경기 종료로 알리는 휘슬이 울리면서 광주는 승점 1점을 안고 돌아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